

「미디어 밸리」 안산시유치촉구전의안

의 안 번 호	528
------------	-----

제출년월일 : 1996. 9. 4.
제 출 자 : 박명훈의원 외 9명

1. 주 문

- 안산시가 주체가되어 「미디어 밸리」 입지 조성 및 사업추진을 시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줄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함

2. 제안이유

- 전경련 산하 국가 경쟁력 강화 민간위원회에서 21세기 고도정보화, 과학화, 지식화 사회를 선도할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인 멀티미디어 산업육성을 위해 미디어 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 미디어 밸리 안산시 유치사업은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산시의 비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 미디어 밸리 단지 유치를 위해 각 시.군에서는 벌써 여건조성 및 사활을 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 최적의 입지 요건과 사업의 연계성, 교통, 기후 및 자연조건을 갖춘 우리 안산시가 최적지 임을 잡안하여,
- 안산시가 주체가되어 미디어밸리 단지 조성 및 사업추진을 시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줄것을 우리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전의 하는 바임.

3. 참고사항

- 「미디에밸리」안산시 유치 이유서
- 춘천시 멀티미디어밸리 조성계획서

「미디어 밸리」 안산시유치이유서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정보화, 세계화, 과학화, 지식화 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통신 산업의 핵 멀티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디어 밸리 조성사업을 전경련 산하 국가 경쟁력 강화 민간유치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의 정보통신 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육성하고, 외국기업의 선진기술을 국내에 적극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 인력을 대규모로 육성, 기존 산업과의 연계 및 21세기 정보도시에 걸 맞는 사업을 발

굴 및 미래 사회의 밝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산업을 위해서는 적절한 입지 선정이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해 반드시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 교통, 유동 인구 및 상주인구의 질, 필요 공간의 규모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면 그 최적지는 서울과 영종도 신 공항과의 연결이 용이하고 기후 및 자연 조건의 쾌적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보아 저희 안산시는 비록 미디어 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늦게 참여하게 되었지만 타 어느 도시보다 최적지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의 최적지는 안산시입니다.

1. 세계의 항공 요충지가 될 영종도 신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며,
2. 서해안고속도로, 신갈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과 연결이 간편하며,
3. 인천항과 근거리에 있으며 대부분에 무역항 개발 및 해양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며,
4. 반월·시화국가공업단지내에 1,6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5. 시화담수호의 풍부한 용수는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공업용수로서 활용가치가 있으며,
6. 멀티미디어 산업과 같은 비공해 산업을 유치하므로써 오염된 시화담수호의 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7.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시화담수호 공유수면의 싼 매립지를 개발할 수 있는 용이점이 있으며,
8.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 내의 고급 전문인력의 유치가 유리하며, 한양대학교, 안산공업전문대 등 양질의 인력 확보가 가능하며,

9. 온난한 해양성 기후 및 높은 일조량으로 항상 쾌적한 기후 등 최첨단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곳이 안산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갈 미디어밸리 조성의 전초기지로서 안산이 최적지임을 자부하면서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을 안산시가 주최가 되어 입지조성 및 사업추진을 시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줄 것을 우리 안산시 의회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